

‘사회주의 정신문명’에서 ‘중화문화’로의 이동*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문화정책의 흐름

이정인**

〈目 次〉

1. 서론
2. ‘중화문화여, 부흥하라!’
 - 1) 정책기조의 변화
 - 2) 문화주체로의 위기
3. ‘민간문화’에서 ‘문화유산’으로
4. ‘중화문화’로의 호명
5. ‘중화문화’란 이데올로기
6. 결론: 중국의 꿈(中國夢)

1. 서론

중국문화와 관련된 수업은 대학마다 반드시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정의 앞에 맞서게 된다. 이는 ‘중국문화’를 수업할 때만 겪게 되는 곤혹스러움은 아니다. 일반적인 ‘국적 문화’를 소개하려 할 때, ‘한국문화란?’ ‘미국문화란?’ 이러한 명제 앞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며 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넓게 국적에 따라 문화를 분류하는 것은 실제로는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국처럼 다민족 국가라고 천명한 나라에서는 ‘국민’으로 포함된 모든 민족의 문화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A00106)

** 쑤저우(苏州)대학교 외래교수

를 수렴해서 국적문화로 정의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서 문화를 분류하고 또 분류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고 난 이후, 그것이 '국적문화'를 대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이견이 분분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 발전, 홍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가급 유·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지정하고 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문화'란 것이 얼마나 복잡하며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거대한 땅과 다양한 민족, 그 문화로 이루어진 현 중국의 문화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통일체로 설명하기에는 어떠한 일관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마다, 각 시대마다 나라와 시대를 유지하며 지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창조한다.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존재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은 △△이다."라고 정의내리는 것이다. 이에 중국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함께 창립한 통일된 다민족국가"라고 명기한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어떻게 통일체로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와 관련된 문제 중에 '문화 정체성'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을 달리고 있는 중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과 인도의 경우와 달리, 인구비율의 소수를 차지하지만 국토의 63.7%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중국내 소수민족은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비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다'란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기로 어떻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중국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문화정책 관련 문건들과 그 중 유·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화두를 이들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중화문화여, 부흥하라!'

1) 정책 기조의 변화

“문화보호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며 과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애국주의 및 혁명전통교육을 진행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및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문화보호법〉 총칙 제1조

“당의 16대 전국대표대회와 16기 3중전회 정신과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철저히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민간문화보호프로젝트를 진일보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건설한다.” -2004년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프로젝트에 관한 통지〉 서두

정책 문건의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 시대마다의 정치적 이념과 그 방향을 드러내 준다. 물론 문건의 성격에 따라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마다 정책 문건의 기조를 이루는 개념들은, 예를 들어, 최근 문건에 등장하는 '3개 대표' 중요사상부터 1980년대 이후 줄곧 등장하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개념들은 현재도 중국의 정책의 기조를 이룬다.

중국의 근대 정책의 특이한 점은 '문화' 또는 '문예'라는 이름으로 강한 정치성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먼저 1942년 〈연안문예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는 연안(延安)에서 마오저똥(毛澤東)이 발표한 문건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를 위한' 문예의 지침을 제출하여 문예가 정치를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중국의 문화정책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후 '쌍백방침(百花齊放·百家爭鳴)'(1956), '문화대혁명'(1966) 등은 모두 중국 사회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정책들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단지 '문화'라는 영역만이 아닌 당대 중국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황희경은 '중국에서 문화 문제는 '순수학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그때마다 아주 민감한 사회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¹⁾라고 주장한다.

이후 당대 가장 큰 변화인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자,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개혁개방할 것임을 제출한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한 개념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다. 이는 1979년 예젠잉(叶劍英)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30주년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개념으로, 물질문명과 사회주의 정신문명이 같이 발달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와 관련된 정책문건들이 제출되며²⁾ 지금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함께 정책의 주요 개념이 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일었던 문화열(文化熱), 천안문 사태 등으로 중국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체제 정비를 필요로 했고 이는 시장경제체제와 동시에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사회주의 정신문명이며 이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사회주의 선진문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중국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정책의 서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000년 이후 문건의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눈에 띄는 것으로 '3개 대표(三个代表)' 중요사상³⁾이 있다. 이는 2002년 16대에서 발표된 것으로 21세

1) 황희경, <철저재건론자들의 중국문화탐색>, 《시대와 철학》 제3권, 1992, 96쪽.

2) ■ 1986년 12기 6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지도방침에 대한 결의(中共中央关于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指导方针的决议)>를 제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동하고 개혁과 개방을 촉진, 실행하며 4항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정신문명 건설을 제창하면서 경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물질문명의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동시에 건설할 것을 강조.
■ 1996년 14기 6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강화를 위한 중요한 문제 결의(中共中央关于加强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若干重要问题的决议)>가 통과, 개혁개방이래 정신문명건설경험의 교훈의 기초 위에 정신문명건설의 지위, 지도방침과 주요원칙 등을 총결한다.

3)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이 선진생산력(자본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개혁 개방에 따라 주요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지식인을 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당이 권력 기반을 자본가 계급까지 넓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2000년 2월 25일 장저민 주석이 광둥성을 시찰하면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3개 대표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등장하였다. 이후 2001년 중국 공산당 창당 80주년을 기념하는 '7.1'강화에서 민간기업인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2002년 11월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개 대표' 이론이 공산당의 당규약에 삽입되었다.

기 중국정책에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16대 주제는 '등소평 이론의 위대한 가치를 높여 전면적으로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관철하여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가속화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문화에 대해서는 "오늘날 세계는 문화, 경제, 정치가 서로 융합하여, 국력경쟁 중의 지위와 작용이 점점 돌출된다. 문화역량은 민족의 생명력과 창조력, 응집력 가운데 깊이 주조된다."고 설명한다.⁴⁾ '입당(立黨)의 근본이며 집정의 근본이자 역량의 근원'이라는 3개 대표는 공산당 지도가 중심이며 당 중심, 정부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알린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문화정책 문건의 기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라는 커다란 주춧돌 위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살을 붙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0년대 이후 정책의 주체의 강조이다. 이전에도 공산당 중심이었고 지금도 공산당 중심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왜 새삼스럽게 정책 중심과 방향성의 중심이 공산당임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를 문화 관련 정책들의 흐름을 보면서 살펴보자.

2) 문화주체로의 위기

현재 중국 정책의 중요한 결정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루어진다.⁵⁾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이

4) ■ 1997년 9월 20일 장저민(江澤民)은 〈덩샤오핑 이론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건설을 21세기에 전면적으로 밀고 나아가자(高舉鄧小平理論的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고 제출한다.

■ 200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인 장쩌민은 〈안정사회의 전면건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신국면을 개척하자(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 新局面)〉를 제출한다.

5) 중국 공산당 산하 기관 중 문화정책과 직접 관련성이 매우 높은 부서는 중앙정치국 직속기관인 중앙선전부, 인민일보, 중앙문헌연구실, 중앙편역국, '求是'잡지사, 중앙대외선전관공실을 들 수 있다. 정부기간인 국무원의 문화 정책 관련 주요 부서로는 문화부, 국가문물국,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 국가언론출판총서, 국가체육총국, 국가관광국, 종교사무국, 신화통신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부,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 국가언론출판총서는 매우 핵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며 공산당 중앙위원회⁶⁾는 당의 업무를 주도하고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이들을 소집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있으며 보통 1년에 적어도 한번은 개최되며 5년 사이에 가장 많게는 7차까지 이루어진다.⁷⁾ 이중 3중전회(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정책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지금까지 3중 전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의 정책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1기 3중전회: 1978년 12월 18일-22일 개혁 개방의 노선을 천명,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대 개막, 일반적으로 특별한 설명 없이 3중전회라 함은 개혁개방의 노선을 천명한 11기 3중전회를 가리킨다.

■ 12기 3중전회: 1984년 10월 20일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통과, 마르크스주의를 근본으로, 도시를 중점으로 한 전체적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 긴박성을 알리고 개혁의 방향과 성질, 임무와 기본 방침 정책을 정하였다.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강령성 문건

■ 13기 3중전회: 1988년 9월 26일-30일 개혁과 건설의 중심을 경제환경 개선, 경제질서 정돈 등에 두기로 결정

■ 14기 3중전회: 1993년 11월 11일-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관한 약간의 결정(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를 통과, 이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의 총체적 계획⁸⁾

■ 15기 3중전회: 1998년 10월 12일-14일 <농업 및 농촌사업 관련 중대 문제

6) 전국대표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기관은 8500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 중 대표를 뽑아 구성하는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7) 역사상 전국대표대회는 한때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은 적도 있었다. 1년에 한 번, 가장 길게는 10여년에 한번 열린 적도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야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폐막한 이튿날, 2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이듬해 열리며 각각 새 지도부와 정부인사를 확정한다. 3중전회부터 6중전회까지는 전국 대표대회가 열린 이듬해부터 중간 3년간에 열린다. 7중전회는 다음 전국대표대회 1주일 전에 열리며 여기에서 다음 전국대표대회 소집일이 결정된다.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등으로 명명한다.

8) 1992년 10월에는 공산당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제기되었다.

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農業和農村工作若干重大問題的決定) 통과, 2010년 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목표로 제시

■ 16기 3중전회: 2003년 10월 11일-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통과,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이인위분(以人爲本)'의 과학발전관 제시

■ 17기 3중전회: 2008년 10월 9일-12일 <농촌 개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 통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 삼농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 결정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때문에 이후 발표되는 문화정책 문건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8년 2월에는 문화부와 국가공상국이 <문화시장 관리 강화 활동에 관한 통지(關於加強文化市場管理工作的通知)>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시장'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그 관리 범위와 임무, 원칙, 방침 등을 밝혔다. 이후 1991년 '문화업무(文化工作)'라는 용어 대신 '문화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문화경제'라는 개념을 제기하였으며⁹⁾ 21세기에 들어서자 '문화시장'이란 용어와 함께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며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다.¹⁰⁾ 이후 문화산업, 문

9) <문화사업에서의 약간의 경제정책 의견에 관한 보고(關於文化事業若干經濟政策意見的報告)>에서 제기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된 문건으로는 ■1992년 6월 국무원은 <제3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결정(關於加快發展第三產業的決定)>을 통해 제3차 산업 발전의 전략적 의의를 밝힘 ■1993년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관리법(營業性歌舞娛樂場所管理辦法)>이 문화부령 제6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는 문화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초의 법제화된 행정 규정으로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문화시장의 행정관리를 도모.

■1997년 2월 중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이른바 '95'계획(1996~2000년)와 2010년을 목표로 하는 <2010 장기 목표 요강(2010年遠景目標綱要)>이 채택, 발표 ■1999년 7월에는 국무원이 <오락 장소 관리조례(娛樂場所管理條例)>을 공포함으로써 "한 손에는 번영을, 한 손에는 관리를(一手抓繁榮, 一手抓管理)"이란 구호를 통해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위한 문화시장 건설의 지도 방침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문화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

화콘텐츠, '세계로의 진출(走出去)', '문화강국', '문화소프트파워' 등 이와 관련된 단어들도 다량으로 등장한다.¹¹⁾

최근 들어, 2011년 10월 18일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대발전 대변영을 추동하는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문화강국건설'이란 목표를 제시한다. '문화강국'이란 본국에 기반하며 전 민족 문명 자질을 제고하여 고도의 문화자각심과 문화자신감을 배양하며 민족공동의 정신의 정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자신의 문화소프트파워에 기초하여 '세계로의 진출(走出去)'의 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²⁾

“문화는 민족의 혈맥이자 인민의 정신적 고향이다. 우리나라 오천여년 문화발전 중 각 민족 인민이 단단히 단결하고 스스로 힘써 함께 유구한 역사와 심오한 중화문화를 창조하여 중화민족을 위해 강대한 정신역량을 제 공하였으며 인류문명을 위해 지울 수 없는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¹³⁾

- 10) 2000년 10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계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
- 11) 2009년 9월 26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中國文化產業振興規劃)>이라는 중요한 문건을 공포했다. 중국 최초로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강령을 담고 있는 이 <계획>은 2009년 7월 22일 이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원칙적으로 통과된 뒤, 전문이 발표되었다. <계획>의 발표 이후 중국의 각급 행정단위는 다양한 후속 문건들을 발표하였다. <문화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화부의 지도 의견(文化部關於加快文化產業發展的指導意見)>(2009.9), <문화산업 진흥과 발전, 번영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金融支持文化產業振興和發展繁榮的指導意見)>(2010.3) 등.
- 12) 이는 “오늘날 문화는 점점 민족응집력과 창조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점점 국가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풍부한 정신문화생활은 점점 중국 인민의 절실한 소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장저민이 제출한 '종합국력'은 경제와 기술실력이 물질적 토대를 이루지만 민족정신, 민족응집력을 빼놓을 수 없으며 정신역량 역시 종합국력에서 중요한 구성분임을 강조한다.
- 13)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대발전 대변영을 추동하는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 중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강국을 꿈꾸며 함께 추진된 것이 '문화체제개혁' 정책¹⁴⁾이다.

“문화체제개혁의 심화를 위해, 중화문화의 '세계로의 진출(走出去)'이란 새로운 형세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잡기예술번영발전의 추진을 위해...(이하 생략)...” -2012년 <중국잡기예술진흥계획(2011-2015) 배포에 관한 통지>

“당의 17대 정신을 관철, 심화시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과학발전관을 구현하며, 사회주의 문화대발전, 대번영을 추진하고 중앙의 문화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안배와 요구를 근거로, 국유 문예공연단(원) 체제개혁 심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2009년 <국유문예공연단(원) 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문화체제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장 경제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화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는 경제시장과는 사뭇 다르다. 문화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물로, 이에 반해 중국 문화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중국은 이것이, 특히 국유문화 단체들이 개방된 문화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혁하여 시장에 맞게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체제개혁은 문화강국으로서의 중국을 위한 발판을 위협이며 이는 '세계로의 진출'을 위협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해답은 문

14) 이와 관련된 다른 정책문건으로는 <문화체제 개혁 시도 활동 회의에서의 연설(關於文化體制改革試點工作會議上的講話)>(2003.6.28, 李長春), 중앙선전부와 문화부 등의 <문화체제 개혁 시안에 관한 의견(關於文化體制改革試點意見)>(2003.6), 문화부의 <문화산업 발전의 지지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支持和促進文化產業發展的若干意見)>(2003.9) 등이 대표적인 '문건'들이다. <문화체제 개혁 시안에 관한 의견>은 문화체제의 개혁의 기본사업으로서 '두 개의 바퀴(兩個輪子)'인 '공익성 문화사업'과 '영업성 문화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자고 역설했으며, <문화산업 발전의 지지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은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생산에 종사하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성 업무를 가리키며 이는 “문화사업과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양자는 모두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중요한 구성성분”이고 “현재 문화산업은 이미 공연업, 영화·텔레비전, 음반·비디오업, 문화 오락업, 문화여행업, 인터넷 문화업, 도서 간행물업, 문물과 예술품업 및 예술양성업 등의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 범위를 규정했다.

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화문화’이다.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중화문화’는 그 키워드가 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중화문화’의 대두는 일찍 시작되었다. 1999년 10월 1일 ‘건국50주년’ 기념식에서 장저민(江澤民)은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도래할 21세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될 것입니다. 모두 분발합시다.”라고 선언한다. 이후 2001년 10월 “중화문화여, 부흥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중화문화부흥선언-신세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中華文化復興宣言-爲促進新世紀中華民族偉大復興和世界和平與發展而奮鬥〉란 문건이 86명의 ‘중화문화연구자’란 이름으로 제창된다.¹⁶⁾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로 나아가는데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중국 공산당 성립 이후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중국 선진문화의 적극적인 창도자이며 발전자”임을 제시하고, 또한 “전국 각 민족의 인민을 단결시켜 부단히 사상문화의 새로운 각성과 이론창조의 새로운 결과, 문화건설의 새로운 성취를 이끌어 당과 인민사업의 앞으로의 발전을 추동한다.”고 그들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¹⁷⁾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중국 공산당이 주체임을 강조한 부분과 연결된다.

다양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제2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은 문화가 사업이자 산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문예가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는 오랜 암묵적인 기조가 이미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기본적 목적은 자본과 이윤이기 때문에 문화가 산업임을 인정한 이상, 자본과 이윤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중국 문화 시장의 자본과 이윤은 외부의 영향력이 강력하며 따라서 문화의 주체는 자본과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주체가

15) 2005년 12월 〈중공중앙 국무원 문화체제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文化體制改革的若干意見)〉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역사적 과정 중 사회주의 선진문명의 번영과 발전은 총체성, 전략성의 지위와 작용을 갖는다.”고 제창하였다.

16) 2011년 7월 1일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성립90주년 기념축사에서 다시 한 번 “중화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유념하여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문화 소프트파워를 형성하여 중화문화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한다.”고 주창한다.

17) 2011년 10월18일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대발전 대변영을 추동하는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자본과 이윤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초기 발전단계'에 처한 중국의 입장이다. 이전에 구심점이 되어주던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던 문예의 그 암묵적 기초를 여전히 손에 잡고 있으려는 바램은 제2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외치면서도 그 중심에는 공산당이 있음을, 그 주체가 공산당이여야 함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미 '인민과 정치를 위한 문예'란 구심점은 사라지고, 그 구심점을 무엇으로 대체하여, 아우를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공산당은 '중화문화'를 대두시키며 밖으로는 문화강국을, 안으로는 단결과 통일의 애국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은 줄곧 정책문건의 서두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심점이 되어주기에는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필요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묘하게 그 강조점이 '중화문화', '애국주의'로 옮겨지는 까닭은 이 때문인 듯하다.

이에 '중화문화'가 어떻게 다시 창조되고 있는지를, 유·무형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민간문화'에서 '문화유산'으로

2004년 한국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 선정사건이 중국에서 커다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중국은 '단오절'에 예전에는 없었던 큰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포함되는 이유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 선정과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아리랑'은 해외에서도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노래이자 국내에서는 한국의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국의 아리랑을 조사하여 유네스코에 2012년 중

으로 아리랑을 등재신청하겠다고 공시했고 2012년 12월 5일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들, 특히 공통의 역사를 지닌 유형, 무형문화재들과 관련된 쟁점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선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중국의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1년 중국 쿤취(崑曲)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부터 중국 정부는 관심을 갖게 된다.

사실상, '민간문화'에 대한 관심은 신문화운동 당시와 연안시기를 걸쳐 당대까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던 '민간문화'는 마오쩌둥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양가(秧歌)의 경우,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홍보 및 교육 수단으로 각 지역에서 행해졌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 이러한 도구적 의미의 민간문화가 아닌, 민간문화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한 이로 펑지차이(馮驥才)가 있다. 그는 2001년 중국민간예술가협회(中國民間文藝家協會, 이하 민협) 회장이 된 후 민간문화유산긴급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중국민간문화긴급구조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마침내 민협에서 시행하는 '중국민간문화유산긴급구조프로젝트'(中國民間文化遺產搶救工程 이하 '긴급구조프로젝트')는 국가 지원을 받는 중점적 프로젝트로 2003년 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국의 56개 민족의 풍부한 민속민간문화, 예를 들어 중국의 민간음악, 무용, 신앙, 희극, 신화, 이야기, 미술, 건축 등 구두로 전승된 민간문예가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 등록된 적이 없었기에 전국의 민간문예를 조사, 기록, 등록, 정리, 출판 등의 체계적인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¹⁸⁾ 이에 장정아는 "이 작업은 역사 이래 최초의 민간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조사, 정리, 출판

18) 발족한 이후 10-15년 동안 전 중국의 문자, 녹음, 영상등의 기록 방법을 통해 전국 각지의 중국민속을 조사, 기록하여 현(縣)을 단위로 《중국민속지中國民俗志》3000여권, 대형총서 《중국민속도록中國民俗圖錄》 시리즈, 《중국민속분포지도집中國民俗分佈地圖集》 시리즈, 《중화민속대전中華民俗大典》 시리즈, 《중국민간문화유산대표작명록中國民間文化遺產代表作名錄》 시리즈, 《중국사시집성中國史詩集成》 시리즈, 《중국민간서사장시집성中國民間叙事長詩集成》 시리즈를 발간할 것이다.

프로젝트로서, 특히 그동안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홀시되어 온 민속 문화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입체적 조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의 조사와 정리로 끝나지 않고 민간문화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야기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문화행동'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⁹⁾고 말한다.

이어 '긴급구조프로젝트'의 가동과 함께 이와 관련된 여러 문건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민간문화유산, 즉 민간문화들(소수민족 포함)을 중국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4월 8일 이와 관련된 중요한 문건이 발표된다. 이는 문화부와 재정부가 연합하여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프로젝트에 관한 통지(文化部、財政部聯合發出《關於實施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的通知》)>와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프로젝트 실시방안(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實施方案)>이다. 이는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다. 그 앞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당의 16차 전국대표대회와 16차 3중전회 정신과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철저히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민간문화 보호프로젝트를 진일보 강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건설한다. 우리나라 각 민족 인민이 오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창조한 민족민간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역사가 유구하다. 이는 중화문화의 근본이자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화민족정신과 정감을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또한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유지하는 기본이며 세계와 연결하는 교량이기도 하다. (중간생략) 중화문명을 전승, 선진문화 발전, 중화민족문화전통 발양은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더욱 증강시켜, 국가의 통일, 단결을 수호한다.”²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 산재해 있는 민간문화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보호해야 할 ‘민간문화’이었지만 정부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프로젝트 속으로 포함되면서, 이렇게 ‘민간문화’에서 ‘문화유산’으로 변화된 명분은 어떠한 내함을 지니는

19) 장정아, <‘민간문화유산’에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1집 1호, 2008, 180쪽.

20) 강조는 필자.

것일까? 이는 앞 장에서 언급했던 정책의 흐름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그리고 위의 서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3개 대표’인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루는 각 민족 인민의 문화는 중화문화이자 국가통일, 민족 단결을 이루는 기본으로 나아가 세계와 연결(走出去)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문화’는 개인의, 산재해 있는 민간의 것(소수민족 포함)이 아니며 이제는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 ‘공산당’으로 바뀌면서, 그 소유권도 국가에 귀속된다는 뜻이 포함되고 따라서 그 성격 또한 관방적일 수밖에 없다.

장정아는 이렇게 민간차원의 보호가 정부중심의 프로젝트로 변화하면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변형되었음을, 국가적 문화전략으로서의 문화유산보호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면서 철저하게 국가주의적 내러티브 속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한다.²¹⁾

국가급 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 계승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나라마다 존재한다. 중국은 특히 이러한 문화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중화문화’ ‘중화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통일, 단결이란 말과 함께 강조한다. 이러한 문건 내 용어의 뒤에는 ‘중화민족’ ‘중화문화’로 거대한 중국을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려는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 그들의 국호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아니던가? 그들이 호명하는 ‘중화민족’ ‘중화문화’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민간문화까지 그 범주 안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살피겠지만 많은 소수 민족의 문화가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있고 이를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있다. 이들이 호명하는 ‘중화문화’는 더 이상 한족 중심이거나 한족 문화가 아닌 것이다.

21) 장정아, <‘민간문화유산’에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1집 1호, 2008.

4. ‘중화문화’로의 호명

‘2004문화정상논단(2004文化高峰論壇)’을 마치고 72명 학자들이 발표한 <갑신문화선언(甲申文化宣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자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외래문화요소를 수용할 것인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화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세계의 많은 오랜 민족, 경계개발지역의 문화의 운명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가가 크고 작음, 역사가 길고 짧음, 국력의 강약을 막론하고 문화교류와 왕래는 모두 평등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문화 소비니즘과 문화 경시에 반대하며 아울러 이런 행위는 반(反) 문화라고 여긴다...(중간생략)...

(2) 화하 56개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해 낸 중화 문화는 지금까지도 전체 중국인과 해외 화인들의 정신적 고향이요, 감정유대와 정체성이다. 중화문화 5천년이 생생히 이어져 오며 끊이지 않은 중요한 원인은 상고시대 많은 지역과 많은 민족, 많은 형태의 문화 종합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해야 한다.....중화문화는 인격 중시, 논리 중시, 이타 중시, 화해 중시의 동양적 품격과 평화정보의 인문정신을 방출하여 현재 세계의 개인 지상주의, 물욕지상주의, 부당경쟁, 약탈적 개발 및 각종 우려스러운 현상들을 사고하고 해소하는데,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계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²²⁾

이 <갑신문화선언>은 관방적 문건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은 자국의 문화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임을, 국가의 독립성, 자주성을 강조하며 문화 전체주의에 반대한다. 이는 현재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다. (2)는 ‘중화문화’란 화하 56개의 민족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상고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의 통일체로 이를 잘 발전시키면 ‘중화문화’가 요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사고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건의 내용은 현 중국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 첫째,

22) 강조와 번호는 필자.

현재 중국을 향한 또는 국제적으로도 문화적 영향력이 미국이 현저히 월등하며 그들의 영향력에 경계를 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정부 문건에는 ‘문화소프트파워’ ‘세계로의 진출(走出去)’이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봐도 짐작할 수 있으며 G2로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고민이 보이기도 한다. 둘째, 현재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중국의 정체성, 통일성에 대한 고심이다. 위 문건에서 언급했듯이 화하(56개 민족²³⁾을 ‘중화문화’라는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통일체로 엮어 내려는 중국은 이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볼 수 있다. 소수민족들의 전통의상과 춤이 등장하며 조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나의 ‘중화문화’, ‘중화민족’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세계적 권위를 지닌 유네스코 문화유산 리스트에 중국의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중국은 국제협약 가입 이후 신속한 전국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현재까지 3차)하여 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의 강대국으로 나서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된 중국 무형문화유산 목록(2010년 말 통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유네스코 등재 중국무형문화유산 목록

연도	목록
2001年	쿤취 昆曲
2003年	고금예술 古琴藝術
2005年	신장 웨이우얼무카무 예술 新疆維吾爾木卡姆藝術 ²⁴⁾

23) 1.东北、内蒙古地区 (7个民族) 满族、朝鲜族、蒙古族、达斡尔族、鄂温克族、鄂伦春族、赫哲族 2.西北地区 (14个民族) 回族、维吾尔族、哈萨克族、东乡族、土族、锡伯族、柯尔克孜族、撒拉族、塔吉克族、乌孜别克族、俄罗斯族、裕固族、保安族、塔塔尔族 3.南地区 (25个民族) 苗族、彝族、藏族、布依族、侗族、白族、哈尼族、傣族、傈僳族、仫佬族、拉祜族、佤族、水族、纳西族、羌族、景颇族、布朗族、普米族、阿昌族、怒族、基诺族、德昂族、独龙族、珞巴族 4.中南、东南地区 (9个民族) 壮族、土家族、瑶族、黎族、畲族、高山族、仫佬族、毛南族、京族 5.汉族

	몽고족 장조민가 蒙古族長調民歌
2009年	귀주 동족 대가 貴州侗族大歌 신장 <마나스>(영웅서사시) 新疆『瑪納斯』 내몽고 후마이 蒙古族呼麥 ²⁵⁾ 조선족 농악무 朝鮮族農樂舞 <거사일> 서사시 『格薩爾』史詩 짱시(티벳족의 전통극) 藏戲 간쑤화얼(민가 甘肅花儿) / 시안구웨(西安鼓樂) / 중국누에방직기예(中國蠶桑絲織技藝) / 푸젠남음(福建南音) / 난징운금(南京雲錦) / 안휘선지(安徽宣紙) / 광둥오극(廣東粵劇) / 저장룡천청자(浙江龍泉青瓷) / 칭하이예공예술(青海熱貢藝術) / 서법(書法) / 전각(篆刻) / 종이자르기(剪紙) / 조판인쇄(雕版印刷) / 전통목재구조건설기예(傳統木結構營造技藝) / 단오절(端午節) / 마조신 풍속(媽祖信俗)
2010年	경극 京劇 / 중국의술 침과 뜸 中醫針灸
2011年	그림자극 皮影戲

【표2】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명단

연도	목록
2009年	치양니엔(치양족 전통명절) 羌年 이족 전통염색과 지수기예 黎族傳統染織技藝 중국목재다리전통제조기예(中國木拱橋傳統營造技藝)
2010年	신장 마이스리푸 新疆的麥西熱甫 ²⁶⁾ 푸젠 중국수밀격착복선제조기술 및 중국활자인쇄술(福建的中國水密隔艙福船製造技藝以及中國活字印刷術)
2011年	흐어저 민족 이마칸 실창 赫哲族伊瑪堪演唱

* 진하게 표시된 목록은 소수민족 관련 유산

총 35개의 중국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긴급보호 포함)에 등재되어 있다. 이중 소수민족 문화와 연관된 것이 12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

- 24) 이는 노래와 춤, 음악의 대형종합예술형식으로 신장의 웨이우얼족 거주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다.
- 25) '후마이'는 투와문자(圖瓦文)xoomei의 중국어 음역으로 원래 '목구멍'을 가리키고 '후음(喉音)'을 가리킨다. 이는 목구멍을 수축시켰다 노래하는 노래창법의 하나로 '쌍성(雙聲, biphonic)'은 한 사람이 노래를 할 때 동시에 두 개의 고저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며 다른 말로 '몽고후음(蒙古喉音)'이라고 한다.
- 26) 노래와 춤을 위주로 한 대형 오락 공연으로 관중이 없이 모두 참가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즐기는 활동이다.

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1998년 채택된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의 규약에 따른 것이다. 이 규약의 목적은 “각 정부, NGO, 또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공동유산이며 또 그들을 다른 집단과 구별시키는 독특한 문화인 구전 및 무형문화를 확인하고 보존하며 또 계승 발전시킬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바로 개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조직이 그들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목적²⁷⁾과 부합되게 그 지역에서 관리, 보존,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임돈희 외, 2004:502)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유산이 ‘관리, 보존,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선정, 예를 들면 선정 과정, ‘가치’의 문제 등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표면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유산은 국내 또는 국외에 그 나라의 문화적인 자산과 상품으로 그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세계 어디를 가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역(자연)과 문화는 표지와 함께 그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그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유네스코 선정 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 삶 속의 일상이었던 ‘민족민간문화’가 어느 순간 국가급 ‘유·무형문화유산’으로 격상된 것으로, 이는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의 환원으로 규정된 것이다.

모든 존재는 어떤 규정을 통과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 사유할 때, 그 존재를 명명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한정은 지식의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한정이 존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서용순, 2011:236)에는 의문이 든다. ‘○○이 △△이다.’라고 정의할 때, 거기에 일관성이 부여될 때, 이는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은 그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중국문화’로 귀속되는 것이며 ‘중국’의 것이라는 점이다.

27)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목적은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 법치,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제고하고,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 보존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문화유산법〉 총칙 제1조

“당의 17대 정신의 전면적 관철과 과학발전관의 실시, 소수민족문화사업의 진일보한 번영,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문화대발전, 대번영 추진을 위해, 각 민족의 공동 단결분투와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2009년 〈소수민족문화사업 번영,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중국’의 것으로 귀속된 것들은 그 속성에 어떠한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는 ‘중국’을 대표하게 된다. 암묵적으로 소수민족의 문화 역시 그 민족만의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며 국가에 소속된 소유권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로소 이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베니스 영화제 금곰상을 받은 《투아의 결혼》의 영화 속에 비춰진 내몽골의 결혼풍습은 특수한 ‘중국문화’로 호명된다. 베니스 영화제가 주는 영화로서의 권위와 함께 이는 ‘중국영화’, ‘중국문화’로 호명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중국문화의 특수성으로 호명되는 것이다.

5. ‘중화문화’란 이데올로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무엇이 중화문화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어떻게 중화문화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중화문화로 수렴해 갈 것인가? ‘중화문화’를 어떻게 존재토록 만들 것인가?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화문화를 해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던 TV 다큐멘터리들이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하상(河殤, 황하의 죽음)〉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 강대국의 흥성)〉로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흥미롭지 않을까 한다.

1988년 6월 중국관영방송사인 CCTV에 방영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다큐 프로그램인 〈하상〉은 중화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서구를 배우자는 논지가 담겨 있다. 〈하상〉은 ‘황하의 죽음’이란 뜻으로, 다큐멘터리 내용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만리장성, 용, 중국인들의 중화문화로 여겼던 전통문화에 대한 ‘사망선고’를 프로그램 제목처럼 내렸으며 이는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서방 문명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대체 중국이 어쩌다 이런 만신창이의 나라가 되었는가? 대지에 안주하여 소규모의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내륙문명으로서의 중국문명은 지중해에서 발원하여 태평양을 석권한 현대 서구문명의 충격 아래에서 이미 문화창조의 활력을 잃었으며, 심지어는 安身立命의 근거조차 잃고 말았다. 따라서 근대 중국인들이 맞닥뜨린 무수한 재난은 기실 중국문명에 대한 역사의 무정한 조롱이다. 〈하상〉은 단지 중국문명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지구상의 모든 농업문명이 해양문명의 도전 아래 이미 해체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내려는 것이다.”(《하상》, 1989:20-21)

중국 내륙의 황화 유역의 농업문명이 대외무역과 자유주의 전통으로 대표되는 개방적인 해양의 남색문명과 대비를 이루며 해양문명, 즉 서양문명에 찬사를 보낸다.

“황색문명이 거대한 응집력을 갖게 된 심오한 비결은 바로 유가문화가 중국 대지위에서 점차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데 있다. 유가의 사상들은 내륙문명의 생활 규범과 이상을 표현해 내고 있어 동방 봉건사회의 전성기에서 그것은 확실히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단일한 사상 통일은 다양한 발전을 약화시켰으므로 고대 생활 속에 풍부했던 해양문명의 요소는 몇 줄기 미세한 샘물이 내륙문명의 황토 위를 흐르는 것처럼 즉시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게 되었다.”(《하상》, 1989:135)

출판서문의 천샤오린(陳曉林)은 ‘〈하상〉의 이론적 근거는 중국의 신흥사상가 진관타오(金觀濤)의 《홍성과 위기》 중에서 중국 전통 문명을 일종의 ‘안정지향구조’의 실험이었다는 규정에서 취하였다.’라고 설명한다.²⁸⁾ 그런데 진관타오는 ‘철

저재건론자'로 진양(甘陽)과 함께 대표되는 인물이다.

〈하상〉이 방영된 1988년은 80년대 발생한 문화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들, 특히 청년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 중국의 미래를 탐색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하상〉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던 진관타오를 비롯한 '철저재건론자'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 철저히 다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군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문화열의 저류에 흐르면서 그 흐름을 추동하고 있는 일반의식(특히 청년학생, 지식인)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청년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그러나 '철저재건론자'들이 반전통을 주장한다고 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양의 말처럼 "전통을 계승, 발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반전통이다!" 즉 '어떻게'의 문제이다. 그러나 자오쯔양 의 실각과 함께 이 작품은 비판받으며 금지되게 된다.

이와 비교되며 많이 언급되는 다큐멘터리가 2006년 CCTV에서 방영된 그 유명한 〈대국굴기〉이다. 이 방송은 15세기 이후 세계를 호령한 9개 대국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며 각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은 어떻게 해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짚어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시청자들의 재방송 요구와 함께 DVD판매는 2-3일만에 동이 날 지경이었다.

그들이 대국이라 꼽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다. 공산당이 제국주의라며 비판을 일삼던 나라들이다. 이들을 '대국'이라고 꼽으며 이들이 어떻게 대국으로 흥성하였는지를 살피고, 이를 거울로 삼아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이 다큐멘터리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²⁹⁾

이 대국굴기의 행간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다음 대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모든 중국인은 하나되어 준비해야 함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8) 苏晓康, 王鲁湘 / 洪熹 译, 《河殇》, 东문선, 1989, 22쪽.

29) 이 프로그램에 대해 홍콩 〈아주주간〉 12월 10호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마르크스주의로 역사를 해석하는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 식민지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력으로 재해석하는 시각을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자유' '경쟁' '민권'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다큐는 결국 서구열강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일까? 황희경은 “〈아주주간〉에서는 제도의 건설과 창안, 국민의 문화소질, 그리고 이른바 소프트파워라고 개괄한다. 그러나 나는 이 다큐를 보는 동안 제일 먼저 국가의 중요성이랄까, 강력한 중앙권력이랄까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지방분산적인 봉건체제에서 먼저 강력한 중앙권력을 가진 민족국가를 이룩한 나라가 세계사의 무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라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자인 런쉬에안(任學安)은 2003년 11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조직한 집체학습 프로그램에서 이 다큐멘터리의 발상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다큐의 방영 뒤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다큐의 학술적 자문을 담당했던 첸청단(錢乘旦)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프로그램에서 주제발표를 했다.³¹⁾

언제나 시대의 대격변기가 되면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은 전통과 현대가 격돌했으며 반전통의 연상선 위에 있었다. 이 두 프로그램 역시 정치적 격변기였던 1988년(1989년 천안문사건)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2006년에 방영되었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전통문화를 다루는 방식, 즉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히 다르다.

〈하상〉의 학술적 자문이었던 진관타오와 그 철학파들은 명시적으로는 반전통을 주장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민족의 특색을 강조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진양은 개혁개방 자체가 부르주아적 자유화의 주범이며 민족적인 것, 중국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개혁개방 정책과 모순되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³²⁾ 반면 〈대국굴기〉는 반전통이 아닌 贊전통을 주장하며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강력한 권력, 즉 공산당의 강력한 집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3개 대표 중요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중화’는 이데올로기이다. 더 이상 ‘중화문화’, ‘중화민족’이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30) 황희경, 〈서양제국 타산지석 삼은 자신감〉, 《한겨레》, 2006.12.7.

31) 위와 동일, 참고.

32) 황희경, 〈철저재건론자들의 중국문화탐색〉, 《시대와 철학》 제3권, 1992, 101,115쪽.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에 대한 정의는 내려진 상태이다.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출현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곧 야만에 대비되는 '문명'의 의미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문명의 우열적 관점에서 공자와 맹자는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며 '중국'의 개념은 '중화'와 '중화주의'의 생성을 단순히 혈연 또는 지역의 관점에서 설정할 수 없음을, '중국'에서 발전한 '중화주의'는 가치론적인 우열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중화'란 지역적으로 세상의 중심만이 아닌 문화적으로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는 단어이기도 하다.

정용니엔(鄭永年)은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국의 표준적인 하드웨어 역량과 함께 소프트웨어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 소프트웨어 역량이란 것이 바로 문화적 역량이다.³⁴⁾ 문화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중국은 이전의 근대 역사 속에서 항상 反전통을 주장하였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贊전통을 주장하며 '중화민족' '중화문화'를 주창하고 있다.

6. 결론: 중국의 꿈(中國夢)

1987년 순휘주(孫惠柱)의 <중국의 꿈(中國夢)>이란 극작품이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중국에서 실험극이 발전하던 시기, 문화열이 한참이던 80년대에 개인의 주체성에서 국가의 주체성까지 고민한다. 당시 서구의 사상의 유입으로 혼란해진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서구의 가치관이 중국을 휩쓸면서 기존의 가치관 vs 새로운 가치관, 중국 vs 서양, 전통 vs 현대의 대립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대략적인 내용은 존(John)은 중국철학을 공부한 미국인 변호사로 극 전체에서 중국의 고대철학인 '도(道)'를 이야기하고 여자 친구인 밍밍은 4분의 1이 미국인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미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양인

33) 강진석, <중화주의의 원형 제구와 당대 이데올로기의 조명>, 《中國學報》 제63집, 2011, 427-428쪽.

34) 유중하,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국으로 '굴기(崛起)'할 것인가>, 《플랫폼》, 2007.

들이 동양인들에 가진 왜곡된 시선을 발견하고 밍밍은 자신이 중국을 떠나기 전, 순수하고 훼손되지 않은 중국의 산하를 찾아간다. 그러나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곳은 더 이상 그녀 기억 속의 순수한 자연이 아니고 이에 그녀는 현대화가 아닌 중국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 속에 삶은 더 이상 중국적인 것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삶의 터전이 이미 미국이 되어버린 밍밍의 이러한 요구는 중국이 삶의 터전인 즈치앙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³⁵⁾

서양의 문화적 충격 속에서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주인공 밍밍의 모습과 존이라는 인물을 통해 중국문화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이 작품 전체의 경향이다. 극의 후반부에 중국 철학을 공부했던 미국인 존에게 다시 중국철학을 공부하라는 밍밍은 '미국인'이 중국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고 글을 써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금은 차이나이즈 드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연극 〈중국의 꿈〉은 끝을 맺는다.

이후 '중국의 꿈'이란 단어는 2013년에 새롭게 부활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중화민족의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꿈이다."라며 제출한 것으로 "중국공산당 성립 100년이 되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신중국 성립이 된지 100년이 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길을 따라, 중국정신을 드높이며, 중국의 역량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이후 '중국의 꿈(中國夢)'은 2013년 10대 유행어로 뽑히기도 했다. 다분히 관방적이기는 해도 말이다.

35) 즈치앙: 그럼 우리는 계속 조상 대대로의 농민복장을 하고 서양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들의 눈을 만족시켜 준다, 맞나요? 그럼 우리들은 이곳에서 대대로 변하지도 않는 농민 동물원에서 돈이 있는 서양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꼴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네요, 맞죠?

즈치앙: 그럼 빨리 돌아가서 달러를 보내세요. 하지만 다시는 교훈 같은 거 가르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돈을 갚을 거예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는 다시 서양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일부러 몸을 짝 핀다)

36) 2012년 11월 29일 국가박물관에서 중공중앙 총서기 시진핑은 '부흥의 길'이란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꿈'을 언급하였다. 2013년 3월 17일 중국 신임 국가주석 시진핑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인 2013년 3월 17일 자신의 25분 동안의 연설문에서 9차례 '중국의 꿈'을 언급하여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슬라보예 지젝은 “‘어떠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총체의 숨겨진 조화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모든 ‘징후’와 대립, 비일관성을 통합된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³⁷⁾라고 말한다.

비일관적이고 통일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통합된 ‘중화문화’로 수렴해 갈 것인가? ‘중화문화’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동시에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바로 ‘조화’를 주장한다. 2006년 10월 16기 6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사회주의 조화사회 구축에 관한 약간 중대한 문제의 결정(中共中央關於构建社會主義和諧社會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 통과되었는데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이자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긴급한 임무를 제시한다. ‘조화로운 사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부강한 국가, 부흥하는 민족, 행복한 인민의 중요한 보장이다.’라며 ‘어떠한 사회든 모순이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회모순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세계의 질서도 이리해야 함을 주장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논어의 첫구절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와 “四海之內 皆兄弟也”를 외친다. “멀리서 친구들이 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요.”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뒤를 이어 3천여명 되는 공자의 제자들이 ‘禮之用，和爲貴’(예를 씬에 조화가 귀하니)를 외치며 ‘조화’의 뜻인 글자 ‘和’를 드러냈다. 심지어 중국의 고속철도 이름이 ‘조화(和諧)’ 아니던가!

이렇게 2013년 재등장한 ‘중국의 꿈’은 한동안 쭉 이어질 것 같다. ‘중화문화’에



【그림1】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중

세계성을 부여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2014년 중국이 ‘문화대국’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지향점이자 그 방법의 하나로 세계에 ‘중화문화’를 인지시키며, 국내로는 우리는 ‘중화민족’이라는 통일의식과 이를 위한 애국주의를

37) 슬라보예 지젝, 2012.6.25 경희대 강의.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꿈'이 단순한 정부의 공허한 울림이 될지,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적 이상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황희경, 〈철저재건론자들의 중국문화탐색〉, 《시대와 철학》 제3권, 1992.
- 황희경, 〈서양제국 타산지식 삼은 자신감〉, 《한겨레》, 2006.12.7.
- 유중하,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국으로 '굴기(崛起)'할 셈인가〉, 《플랫폼》, 2007.
- 장정아, 〈'민간문화유산'에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한국문화인류학》제41집 1호, 2008.
- 張美娜, 〈한-중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강진석, 〈중화주의의 원형 재구와 당대 이데올로기의 조명〉, 《中國學報》 제63집, 2011.
- 문화재청, 〈중국, 아리랑 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2011.6.22.
- 이정원 외,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로 비롯된 한중간 문화갈등 배경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2012.
- 서용순, 〈근대적 정치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전망: 존재와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22집, 2011.10.
- 楊鳳城, 〈從“建設社會主義精神文明”到“建設社會主義文化強國”〉, 《高校理論戰線》 第03期, 2012.
-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의 몇 가지 중요문제에 관한 중공당 중앙위원회 결의(번역본)〉, 《중소연구》 71호, 1996.
- 양순창, 〈중국 개혁개방 이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경과와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0집 1호, 2002.
- 김영문, 〈반정신오염 및 정신문명건설운동과 그 실패원인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2006.
- 임돈희·로저L.자벨리,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집, 2004.
- 서연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선양방안〉, 《공연과 리뷰》, 2011.
- 박계리,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와 유네스코 협약〉, 《미술사논단》 34, 2012.

- 蘇曉康, 王魯湘 / 洪熹 역, 《河殤》, 東문선, 1989.
- 康保成 主編, 《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 中國社會科學院知識產權中心 編, 《非物質文化遺產保護問題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12.
- 北京市文化局社文處 외 編, 《非物質文化遺產縱橫談》, 民族出版社, 2007.
- 王鶴云 高紹安 著, 《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法律機制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09.
- 本書編寫組, 《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 大發展打繁榮十講》,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1.
- 辛鳴 主編, 《十七屆六中全會後黨政幹部關注的重大理論與現實問題解讀》,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1.
- 本書編寫組, 《文化體制改革熱點面對面》, 紅旗出版社, 2011.
- 趙躍, 《中國特色社會主義史論研究》,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2.
- 슬라보예 지젝, 2012.6.25 경희대 강의.

〈Abstract〉

Each nations and era's create the ideology maintaining and governing each society. How to keep a nation as a unity? In reference to this question, an 'identity', that is 'cultural identity' could be an answer. This is a top subject to running 'China' in 2012 as well.

Recently, China is designating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非物質文化遺產) and registering them for UNESCO. This is one kind of ways of protecting, developing and publicizing chinese own culture.

'Chinese culture(中华文化)' representing China has a complicated and political tone. As one term, 'chinese culture', drawing one picture of China as an unity, it does not exist any coherence.

Chinese has considered the 'culture' seriously with every turning point, like 'New Culture Movement(新文化运动)', 'The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A cultural subject to China is not a purely academic subject, but a sensitive social-political meaning.

This paper considers that how to China make the 'Chinese culture' as an unity, it is not any more important that what is the 'Chinese culture'. Also with the 'Chinese culture', China has some plans to the world.

With some official documents in relation to cultur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is pater studies China how to solve this subject.

關鍵詞: 中华文化, 中华民族, 中国非物质文化遗产, 文化政策, 文化体制改革, 中国民族民间文化保护工程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